

<http://dx.doi.org/10.17703/JCCT.2021.7.2.261>

JCCT 2021-5-29

량치차오와 최남선의 계몽 기획 관련 양상

Aspects of Liang Qichao and Choi Namsun's Enlightenment Project

문대일*

Moon dae-il

요약 근대시기 한중 양국에서 제기된 계몽 기획은 제국주의 열강에 대항하는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작동했다. 그 중에서 '소년'은 계몽의 주제로, '바다'는 매체로 등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년 담론'을 통해서 량치차오는 궁극적으로 '신민'을 위한 나라를 상상했으며, 최남선 역시 망국의 위기를 벗어나고 나아가 '신대한'이 강대국 반열에 들어서길 고대하였다. 량치차오는 소년담론을 통해 '소년 국가'와 '노년 국가'의 개념을 제창하고, '실력양성'을 통한 '소년 국가'로의 발전을 기원한다. 최남선 역시 량치차오의 소년담론에 영향을 받아 국가의 미래가 '소년'에 달려있다고 인식하였으며, 조선이 '소년 국가'가 되기 위해 실력 양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량치차오와 최남선은 시 창작을 통해 '소년 담론'을 적극적으로 전파하였다. 량치차오는 바다와 관련된 시 창작을 통해 세계 지리와 역사 등에 대해서 소개함과 동시에, 넓은 의미에서 세계를 이어주는 통로로써 바다를 인식하고 이를 개척하고자 하는 도전의식을 고취시켰다. 최남선 역시 '바다'와 '소년'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킨 시를 창작함으로써, '해상에서의 모험심', '바다와 소년의 진취적 정신' 등을 진작시켰다.

주요어 : 량치차오, 최남선, 소년, 애국, 계몽, 『소년』

Abstract The enlightenment project raised in both Korea and China during the modern period worked as a part of the patriotic enlightenment movement against the imperial powers. Among them, "boy" appeared as the subject of enlightenment, and "sea" appeared as a medium. Specifically, through "Boy Discourse," Liang Qi Chao ultimately envisioned a nation for "subjects", and Choi Nam-seon also sought to overcome the national crisis as "New Korea" and join the ranks of powerful nations. Liang Qiqiao proposes the concept of a "Boy Nation" and an "Old Nation" through boy discourse, and wishing for the development of the "Boy Nation" through "proficiency training". Choi Nam-seon also recognized that the future of the nation depends on "boys", influenced by Liang Qi-qiao's discourse on boys, and argues that Choseon should cultivate skills to become a "Boy Nation". In addition, Liang Qi-chao and Choi Nam-seon actively spread the "boy discourse" through the creation of poetry. Liang Qi Chao introduced the world's geography and history through poetries related to the sea, while at the same time inspiring a sense of challenge to recognize and pioneer the sea as a pathway that connects the world in a broad sense. Namseon Choi also created a poem that directly linked "the sea" and the "boy" to promote the "adventure at sea" and "the progressive spirit of the sea and the boy".

Key words : Linag Qi Chao, Choi Namsun, Boy, Patriotism, Enlightenment, 『Boy』

*정회원, 서원대학교 국제학부(중국어) 조교수

접수일: 2021년 3월 20일, 수정완료일: 2021년 4월 18일
게재확정일: 2021년 4월 27일

Received: March 20, 2021 / Revised: April 18, 2021

Accepted: April 27, 2021

*Corresponding Author: wendayi@hanmail.net

Associate Professor of Dept. of International Studies(Chinese major), Seowon Univ, Korea

I. 서론

근대시기 한중 양국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을 받아, 식민지·반식민 상태로 전락하였다. 때문에 량치차오와 최남선은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몽을 기획하고 문학을 통해서 계몽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현해 내었다. 그 중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소년’, ‘바다’ 등이다.

주지하듯, 량치차오(1873~1929)는 「소년중국설」(1900년 2월 10일, 『청의보』 제35책)을 통해서 중국의 미래를 ‘소년’에 기탁함으로써 ‘소년’에 대한 희망을 나타낸 ‘소년 담론’을 제기하였다. ‘소년’은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주체로서 거듭 강조되었으며, 량치차오는 ‘소년’을 제국주의 열강으로부터의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다. 마찬가지로 최남선 역시 1908년 11월 1일 『소년』 잡지를 창간하였으며, 「해에서 소년에게」라는 시를 창작하는 등 ‘소년’에 대한 희망을 지속적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량치차오와 최남선은 각각 「이십세기태평양가」와 「해에서 소년에게」에서 ‘바다’를 매개체로 하여 근대화를 이루려고 하였다. 이렇게 량치차오와 최남선이 제기한 ‘계몽 기획’은 여러 가지 사상적 ‘교집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 기존의 연구는 일본의 영향만 강조된 비교 연구가 주를 이룬다. 때문에 본고는 량치차오와 최남선의 계몽 기획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량치차오와 최남선의 관련 양상

량치차오는 근대시기 변법자강운동을 주도한 인물로서 애국계몽사상을 중심으로 한 정치, 역사, 교육, 문학, 문화 등 분야에 혁명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는 자신이 창간한 『청의보』(1898.12~1902.01.12.)와 『신민총보』(1902.01~1907.07) 등을 통해 애국계몽운동을 펼쳐나갔다. 량치차오는 그 당시 제국주의 열강의 위협이 반식민지로 전락한 중국의 상황 속에서, 문필을 통한 ‘구망도존(救亡圖存)’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판단하였다. 량치차오의 글은 중국내뿐만 아니라, 주변국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량치차오의 애국계몽사상을 담은 잡지와 글들은 실시간으로 한국에 전해졌다. 당시 한국에서 애국지사로서 활동한 신채호, 박

은식, 안국선, 이해조 등은 량치차오 글의 원문, 번역문 혹은 역술문을 일반대중에게 소개하였다. 또한 후에 량치차오 글들을 모은 『음빙실문집』은 한국에서 출판된 이후 평양에 설립한 대성학교 등에서 한문교과서로 사용될 만큼 널리 읽혔다.

그중에서 육당 최남선(1890~1957)은 량치차오 작품의 대표적인 애독자로, 최남선의 근대 잡지의 창간, 시 창작, 외국작품의 번역 등 일련의 행적을 추적해보면, 곳곳에서 량치차오와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본고는 최남선이 민족운동을 한 시기에 창작한 작품과 사상을 다루기로 한다).

알려진 대로 최남선은 어릴 적부터 한자를 학습하였으며, 한문으로 된 글을 읽기에 무리가 없었다. 이 같은 최남선의 한문 소양의 수준으로 볼 때, 최남선이 량치차오가 창간한 신문·잡지의 원문을 충분히 독해할 수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최남선은 의식적인 독서가 가능했던 중학생 시기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량치차오의 글을 탐독했다. 최남선의 어린 시절 독서에 관한 회고를 기록한 「서재한담(書齋閑談)」을 보면 다음과 같다.

七, 八세에 한문을 읽기 시작하고 그 때 한문으로 서양 서적을 많이 번역 간행하는 기관이 중국에 여러 군데 있어서 다수한 서적이 한국으로까지 흘러들고 있었는데, 한국에 들어오는 이러한 종류의 책도 가장 먼저 보고 가장 깊이 인식하기에 힘썼는데 이런 것들도 내가 가졌던 책 가운데 또 하나의 콜렉션이 되었다 [1].

최남선이 7, 8세 때이면, 1897년 혹은 1898년이다. 주지하듯, 이 당시 한국에 소개된 중국지식인들의 글 중에 가장 많이 소개된 작품은 량치차오의 것 이었다. 량치차오란 인물은 한국에 1897년 2월 15일 「대한독립협회보」를 통해 처음 소개되었고, 약 2년 뒤 1899년 3월 17일자와 18일자의 『황성신문』에 실린 「애국론」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2]. 애국계몽사상이 농후하게 드러난 량치차오의 글은 당시 망국의 위기에 처해있는 근대 한국문인들에게 모종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충분했다. 이후 한국의 근대 신문·잡지는 대대적으로 량치차오의

글들을 보도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 서울과 인천에 설치된 보급소에서는 량치차오가 창간한 잡지를 실시간으로 받아 볼 수 있을 정도로 량치차오의 글이 한반도 전역에 풍미했다 [2].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최남선이 ‘가장 먼저 보고 가장 깊이 인식하기’ 힘든 책 중에 량치차오의 것이 있으리란 추측은 상당히 합당하다 판단된다. 또한 3차례 일본 유학 경험을 한 최남선은 일본 체류 시기 일본에서 발간된 량치차오의 『신민총보』, 『신소설』(1902.01~1906.10) 등의 원문 잡지도 섭렵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최남선이 량치차오의 글을 탐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최남선의 시 번역에 있다. 최남선은 자신의 번역 작품집 『지굴이향집(枳橘異香集)』에서 량치차오의 작품을 직접 번역하여 게재하였다. 『지굴이향집』은 일종의 ‘역시집(譯詩集)’으로 한시(漢詩)를 우리나라 고유의 시조(時調)로 번역한 시집이다. 본 시집은 한시와 시조의 ‘시제(詩題), 시상(詩想), 시경(詩境)’을 비교하고 느낄 수 있는 기쁨을 ‘탱자(枳)와 귤(橘)의 서로 다른 향기’로 표현하였다. 즉, 한국의 시조와 중국의 한시의 운치와 멋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시집으로서 최남선은 중국의 한시를 한국의 것으로 번역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시집에 실린 120수에 달하는 한시 중에서, 최남선이 량치차오가 1902년에 발표한 「삼십자술(三十自述)」의 서두 부분(첫 문장)을 발췌해 번역하였다는 사실이다.

日月擲人急, 風雲入世多. / 如何一少年, 倏忽已三十.

歲月이 사람잡아 매물하게 내던지네 / 가지록 世上일은 뒤숭숭이 더하거늘 / 어느새 도령님 몸이 삼고개 넘다니 [1].

위 글은 량치차오가 30세를 맞아 창작한 시 중의 하나로, 다른 작품들에 비해 한국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작품이다. 그러나 최남선은 번역을 통해 한국의 대중에게 량치차오의 다양한 작품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량치차오의 시에 나타난 운율을 한국의 시조의 특성을 살려 번역하는데 상당한 공을 들였다. 필자가 량치차오의 원문과 최남선의 번역문을 꼼꼼히 대조해 본 결과, 최남선의 번역본에는 작은 ‘변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첫 번째는 “風雲入世多, 日月擲人急”로 원문과 순서가 전도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倏忽”로 치환하였다. 이 같은 ‘변동’은 독자들이 위의 시를 읽을 때 시상(詩想)을 좀 더 부드럽게 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 단어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며 음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최남선은 의도적 변동을 통해 원문의 의미를 매우 자연스럽게 나타내며 전달하였다.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할 점은, 최남선이 량치차오의 방대한 저작 중에서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반향이 미비한 「삼십자술」이란 글을 주목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최남선이 그 만큼 량치차오의 글들을 매우 많이 탐독했고, 아주 익숙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 최남선의 경력 중에서 빼놓을 없는 것이 바로 청년학우회(1909.02~1910.11)의 핵심 멤버로 활동한 사실이다. 주지하듯, 청년학우회는 안창호, 유길준, 윤치호, 이승호 등을 중심으로 한 신민회가 주도하여 창설한 청년교육 단체이다. 이들은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구국을 감당해야 할 청년들의 ‘실력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최남선은 1910년 3월 청년학우회에서 총무대리를 맡을 정도로 활발히 활동하였으며, 이곳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과의 특별한 인연을 맺기도 하였다. 이광수의 회고에 따르면, 최남선은 평소 안창호를 ‘스승’이라 생각할 정도로 존경하였으며 사상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최남선이 발간한 『소년』에 여러 차례 안창호의 작품이 실리고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안창호에 대한 최남선의 존경심을 짐작토록 한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안창호가 『음빙실문집』의 애독자였을 뿐만 아니라 ‘홍보대사’였다고도 말 할 수 있을 정도로 치밀하게 연구하고 다른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한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안창호는 대성학교 교장 재직 시절 『음빙실문집』을 한문교과서로 채택한 장본인이며, 『음빙실문집』에 녹아 있는 애국, 구국, 계몽, 자강 등의 사상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당시 한국 현실에 적절히 적용하고자 하였다. 최남선은 청년학우회의 간부로 활동하면서 안창호와 많은 교제를 하였으며, 직·간접적으로 도산의 영향을 받아 량치차오의 애국계몽사상을 의지적으로 학습하였다.

이 외에도 량치차오와 최남선이 번역한 외국의 시를 살펴보면 ‘교집합’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두 사람 모두 바이런(George Gordon Byron)의 시를 적극적으로 번역하여 소개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그렇

다면, 량치차오와 최남선이 외국의 다양한 민족시인의 작품 중에서 유독 바이런의 시에 공감하게 된 연유는 무엇일까? 주지하듯, 바이런은 영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인물이다. 그의 시에는 진취적, 모험적 정신과 함께 자주, 독립, 자유정신이 깃들어 있다.

량치차오는 1902년 12월에 량치차오가 발간한 『신소설』(2호)에는 바이런의 초상화를 삽입하여 ‘영국의 대문호’라고 소개하였다. 이어서 1903년 1월에 발간한 『신소설』(3호)에는 바이런이 투르크에 의해 망국된 그리스를 애도하기 위해 창작한 「그리스를 애도하며(哀希臘)」를 번역(「그리스의 섬들(The Isles of Greece)」 일부를 발췌)하여 『신소설』에 실었다 [3]. 이 작품은 후에 『음빙실문집』에도 실려 널리 읽혔다.

상술한 바와 같이, 량치차오가 『음빙실문집』에서 여러 차례 소개한 바이런의 문학과 행적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를 동경하게 되었다. 최남선은 1910년 3월에 「해적가(海賊歌)」를 『소년』 제3년 제3권에 번역(「해적(The Corsair)」의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하였다. 이는 최남선이 번역한 몇 안 되는 서양의 시가 8수 중의 한 수이다. 최남선이 번역한 「해적가」의 배경은 「그리스를 애도하며」와 마찬가지로 투르크에 점령당한 그리스이며, 주요 내용은 정의로운 해적들이 노예로 팔린 그리스 소녀를 구출하는 것이다. 작품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의 망국이라는 현실 속에서 겪게 되는 비참한 피식민지인의 삶은 그 당시 한중 양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과 대동소이하였다. 때문에 량치차오와 최남선은 바이런 작품 속에 표출된 독립, 자유, 모험 등의 정신을 분반고 민중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바이런의 시를 선택적으로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III. ‘소년 담론’의 고찰

근대시기 한중 양국의 지식인들은 ‘독립’과 ‘자강’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전파하였다. 특히 량치차오와 최남선은 민족운동의 근간을 이루는 ‘청(소)년층’의 실력양성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그들은 ‘소년’들이 제대로 서야 망국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소년’의 계몽을 통해 국가가 근대국가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소년’에 대한 그들의 기대는 여러 논문, 사설, 연설 등에서

산발적으로 표출되는 동시에, ‘소년’을 중심으로 한 문학 작품 창작을 통해 민중을 계도하려는 목적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기도 하였다.

량치차오가 제기한 ‘소년 담론’은 일본에서 유행한 ‘소년 정신’과 결을 달리 한다. 국가 쇄신을 목적으로 하여 일본이 강조한 ‘소년’ 정신은 진취, 모험, 발전 가능성, 참신함 등으로 대표되는 ‘소년’의 특성을 서양 근대국가가 지닌 특성과 등치하였다. 이 같은 일본의 ‘소년 정신’은 ‘동양’을 ‘장년’으로 보고, ‘서양’을 ‘소년’으로 보는 제국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이 제기한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동·서양으로 구분되는 ‘장년’과 ‘소년’의 개념과는 달리, 량치차오는 ‘소년’을 ‘국가가 발전하는 단계’의 하나로 보았다. 량치차오의 관점에 따르면, 서양 국가라도 ‘장년(몰락) 국가’가 될 수 있고, 동양 국가 역시 ‘소년(쇄신) 국가’가 될 수 있음은 물론, 몰락과 쇄신의 반복을 통해 국가 발전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량치차오의 ‘소년 담론’은 최남선에게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최남선 역시 유럽 국가들이 문명국이 될 수 있던 이유를 ‘교육’에서 찾았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교육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양성함으로써 문명국이자 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조선 역시 실력양성을 통해 근대 국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최남선은 정신문명의 진작을 통해 국가를 쇄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한국 역시 교육을 통해 ‘소년’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1. 신민국가의 일환으로써의 기획된 ‘소년’

량치차오는 1900년 2월 이른바 ‘소년 담론’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소년중국설」을 발표한다 [4]. 이 글을 쓴 후, 량치차오는 이전에 주로 쓰던 필명 ‘애시객(哀時客)’을 버리고 ‘소년중국지소년(少年中國之少年)’으로 바꾼 것을 보면 그가 ‘소년’에 건 기대가 얼마나 컸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 글은 국가를 노년과 소년으로 비유하여, 그 의미를 매우 간결하게 전달하고 있다.

소년이 지혜로우면 국가가 지혜롭고, 소년이 부유하면 국가가 부유하며, 소년이 강하면 국가가 강하고, 소년이 독립해야 국가가 독립하며, 소년이 자유로우면 국가가 자유롭고, 소

년이 진보하면 국가가 진보하며, 소년이 유럽
을 이기면 국가가 유럽을 이긴다. [5]

위 글에서 량치차오는 국가의 명운과 소년의 명운을 동일시한다. 노년 국가는 ‘도태됨’, ‘쇄락함’, ‘보수적임’, ‘구태의연함’ 등으로 설명되고, 소년 국가는 ‘지혜로움’, ‘강인함’, ‘진취적임’, ‘자유로움’ 등으로 대표된다. 때문에 량치차오는 모든 희망을 소년(청년)에게 걸고 국난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량치차오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오늘날 장년의 국가이고, 우리 중국은 오늘날 소년의 국가이다(歐洲列邦在今日爲壯年國, 而我中國在今日爲少年國)” [5]라 설명하며, 국가 발전 단계로 나누어 봤을 때 당시의 중국을 ‘소년의 단계’라 비유하며 중국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보인다. 량치차오의 논리로 볼 때, 중국은 제국주의 열강에 대항하여 ‘적자생존’의 경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존재였던 것이다.

특히 량치차오는 ‘소년’의 소환과 함께 ‘바다’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소년들에게 바다를 향해하며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모험심과 도전정신을 일깨워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장편시 「이십세기태평양가(二十世紀太平洋歌)」에 잘 나타난다. 「이십세기태평양가」는 량치차오가 미국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탄 배가 태평양을 지나던 1899년 12월 31일부터 1900년 1월 1일에 창작되었다. 작품의 전반부는 태평양을 건너는 자신의 심정을 묘사하였으며, 후반부는 세계 지리와 인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기술한다. 이 작품은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등을 음역(音譯)한 지명, 인명 등의 고유명사를 나열한 신체시로 그의 기존 작품과는 다른 독특한 풍격을 지닌다. 또한 이 작품은 당시 독자들이 ‘신문물’을 이해하는 ‘통로’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소년 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으로 나타나는 ‘바다’를 묘사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모험심과 도전정신을 고취시키도록 하였다.

그밖에 량치차오는 ‘소년 담론’을 더욱 공고하게 구축하기 위해, 서양의 소년영웅 작품을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쥘 베른(Jules Verne)의 모험소설 『Deux Ans de Vacances』(『15소년 표류기』)를 번역한 『십오소호걸(十五小豪傑)』이 있다. 15명의 소년이 바다에 나가 항해하면서 겪는 이야기와 섬

에 정착하여 겪는 갈등 등으로 이루어져있는 이 작품은 “소년도 당대의 ‘호걸’이 될 수 있다”는 명제를 상기시켜 주기 위해 ‘십오 소호걸’의 제목으로 중국 대중에게 소개되었다. 이 외에도, 량치차오는 『피득대제전(彼得大帝傳)』, 『이태리건국삼걸전(意大利建國三傑傳)』 등 세계 영웅 전기를 번역했으며, 그중에서도 소년 영웅의 이미지와 행적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였다.

기실 량치차오의 ‘소년 담론’은 ‘신민설’과 밀접하게 연결 되어있다. 량치차오는 신국민을 양성하는데 있어서 ‘소년의 교육’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질의 소년 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여성의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선순환 과정은 궁극적으로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지름길로 작용하였다.

2. ‘신대한의 소년’ 기획

량치차오의 「소년중국설」은 주변국의 큰 반향을 일으켰다. 주지하듯, 1906년부터 근대 한국의 신문과 잡지에 이 글과 관련된 기사 및 논설 등이 발표되었고, 1908년에는 장지연이 량치차오의 『중국혼』을 번역·출간하면서 「소년중국설」의 일부도 함께 소개하였다 [4]. 이 시기 최남선 역시 ‘소년’이 한국의 미래를 담보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으며, 여러 글을 통해 ‘소년’ 시기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특히 「소년시언」에서 소년 시기 뜻(立志)을 세워 민족을 위해 일하라고 권면하고 있으며, ‘소년’을 통해서 망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大韓)’을 만들 것을 주장한다. 최남선은 이러한 ‘소년’에 대한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1908년 11월에 잡지 『소년』을 창간하였고, 이를 통해 ‘신소년’의 이미지를 확립하였다. 그중 창간호에 발표한 「地圖의 概念」이란 글에서 “嗚呼라 我大韓이 過去時代 에는 老人 大韓이 되얏거니와 今日은 소년大韓이 될 機會라”고 언급하며, 노인(舊)과 소년(新)을 대비한다. 여기서 최남선이 주장한 ‘소년’의 개념은 ‘진취적’, ‘활동적’, ‘발명적’인 것으로, 량치차오의 그것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다.

최남선 역시 이미 망국의 길로 접어든 국가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희망을 ‘소년’에게 걸었으며, ‘소년’들에게 막중한 정치적 사명을 부여하였다. 그는 “우리 大韓으로 하야곰 소년의 나라로 하라”고 하는 『소년』의 창간 취지를 통하여 ‘소년 담론’을 천명하였고, 소위 ‘소년 담론’을 담은 신체시, 논설, 등을 게재하

여 보급하였다. 또한 최남선은 꾸준한 창작 외에도 뛰어난 한문, 일본어 실력을 바탕으로 진취정신, 모험정신 등이 강렬하게 나타난 외국의 작품을 번역하여 출판함과 동시에 다양한 외국작품을 번역하여 『소년』 잡지에 연재하였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소년’ 정신을 담은 작품으로는 『로빈슨 無人絶島 漂流記』(1909)가 있다(원작은 다니엘 디포우(Daniel Defoe)가 1719년에 쓴 『로빈슨 크루소』이다). 본 작품은 1909년 2월 1일부터 1909년 9월 1일까지 7회에 걸쳐 『소년』에 연재된 작품으로, 모험심이 강한 ‘소년’인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이다. 최남선은 로빈슨의 진취정신, 모험정신, 불굴의 정신 등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번역 의도를 명백하게 나타내었다. 그밖에 최남선은 「러시아를 중흥시킨 피오토르大帝」, 「나폴레옹大帝傳」, 「이태리를 統一시킨 가디발디」 등 다양한 외국의 영웅 전기를 『소년』을 통해 소개하였다. 이 작품들은 모두 일찍이 량치차오가 발간한 잡지에 수록되었던 작품들로, 소년정신이 잘 드러난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최남선은 한국의 역사 속에서 ‘소년 정신’ 고취에 도움이 될 만한 이순신, 을지문덕 등 다양한 영웅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민족의 우월성을 확보하고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신적인 존재로 형상화된 단군을 민족영웅으로 소환했다는 점이다.

최남선은 ‘신대한’에 대한 자신의 구상 속에서 큰 역할을 맡을 주인공을 바로 ‘소년’이라 지목한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소년’에 대한 최남선의 기대에 공감하였고, 이후 ‘소년’을 기치로 삼은 『소년단』, 『소년애국단』, 『소년세계』 등 많은 잡지들이 연이어 간행된다. 뿐만 아니라 최남선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징에 기초하여 ‘바다’와 ‘소년’을 연관시킴으로써, ‘해상에서의 모험심’, ‘바다와 소년의 진취적 정신’ 등을 작품과 논설에서 구체화시킨다. 『소년』의 창간호 첫머리에 「해에서 소년에게」가 발표된 것만 보더라도, ‘바다’와 ‘소년’에 대한 최남선의 인식이 얼마나 강렬하였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시는 신체시의 효시로, ‘자유시’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소년에 대한 진취적 기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터……르썩, 터……르썩, 턱, 썩…… 아. /
나에게 덜하지, 아니한 찡가. / …… / 진시

황, 나팔류, 너희들이냐. / 누구 누구 누구냐
너희 亦是 내게는 굽히도다 [1].

주지하듯, 진시황과 나폴레옹은 당대를 호령하던 영웅이다. 그러나 최남선은 진시황과 나폴레옹으로 상징되는 권력, 무력 등 그 어떤 세력일지라도 소년의 기개를 꺾을 수 없을 것이라 역설한다. 이러한 그의 소년에 대한 기대는 ‘新大韓’의 건설의 주인공이 되어 난관을 헤쳐 나갈 소년에 대한 염원에 기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어서 발표한 「신대한소년」에는 소년 형상과 바람이 더욱 구체화되었다.

全部의 誠心 다 들어 힘 기르고 / 全部의 情神 다 써 知識 느려서 / 우리는 將次
누를 爲해 무삼일 하려 하느냐 / 弱한놈 어린놈을 도울 양으로 / 強한놈 넘어뜨려 /
「最後勝捷은 正義로 돌아간다」는 밝은 理致를 보이려 함이아니냐 / 올타올타 果然
그렇타 / 新大韓의 少年은 이려하니라 [1].

상술한 ‘全部의 情神을 다 써 知識 느려서’라는 구절은 최남선이 기본적으로 실력양성을 통해 근대국가로 나아가길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와 같은 그의 사상은 조선이 소년 교육의 강화를 통해 ‘소년 국가(쇄신)’로 발돋움하고, 나아가 유럽 강대국에 대항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IV. 나오는 말

근대시기 량치차오를 필두로 제기된 ‘소년 담론’은 주변국가에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기실 량치차오가 주장한 ‘소년’은 넓은 의미로 ‘청년’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며, ‘노년’ 혹은 ‘장년’과 상반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최남선은 좁은 의미의 ‘소년’으로 15세 정도를 의미한다 [4]. 이는 식민지배 하에 자라나는 어린 ‘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인식에서 기인되었다. 비록 량치차오와 최남선이 각각 지칭하는 소년의 구체적인 나이는 조금의 차이가 존재하나, 그들이 주장하는 ‘소년 담론’이 당시 제국주의 열강에 대항하고 나아가 근대국가의 건설을 위한 하나의 ‘돌파구’로써 제기되었으며, 이들에

게 국가부흥을 위한 막중한 정치적 책임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그들의 '소년 담론'은 논설을 비롯하여, 시, 소설, 번역 작품 등 다양한 문학작품으로 구체화되었다.

첫째, 최남선은 어린 시절부터 량치차오의 저작을 탐독하였으며, 독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 「삼십자술」의 첫 구절을 번역할 만큼 량치차오의 저작에 관심이 있었다. 최남선은 일생동안 량치차오의 다양한 작품을 통해 그의 사상을 받아들였으며, 이는 최남선이 바이런 작품의 번역과 '소년 영웅'을 다룬 세계 영웅 작품을 선정하여 번역하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량치차오와 최남선의 '소년 담론'은 소년의 '실력양성'을 통한 국가 미래 건설을 주장한다. 량치차오는 「소년중국설」을 통해 '소년 국가'와 '노년 국가'의 개념을 제창하고, '실력양성'을 통한 '소년 국가'로의 발전을 기원한다. 최남선 역시 량치차오의 소년담론에 영향을 받아 국가의 미래가 '소년'에 달려있다고 인식하였으며, 「신대한소년」을 통해 조선이 '소년 국가'가 되기 위해 실력 양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량치차오와 최남선은 시 창작을 통해 '소년 담론'을 적극적으로 전파하였다. 량치차오는 「이십세기 태평양가」를 통해서 세계 지리와 역사 등에 대해서 소개함과 동시에, 넓은 의미에서 세계를 이어주는 통로로써 바다를 인식하고 이를 개척하고자 하는 도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최남선 역시 「해에서 소년에게」를 통해 '바다'와 '소년'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킴으로써, '해상에서의 모험심', '바다와 소년의 진취적 정신' 등을 진작시키고자 하였다.

종합해보면, 근대시기 한중 양국에서 제기된 '소년 담론'은 제국주의 열강에 대항하는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작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량치차오는 '소년 담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신민'의 나라를 상상했으며, 최남선 역시 '소년'을 통해 망국의 위기를 벗어나고 나아가 강대국 반열에 들어서길 고대하였다. 때문에 량치차오와 최남선이 중요하게 인식한 '소년의 성장'이란 단지 한 개인의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민족과 국가의 발전과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량치차오와 최남선의 '소년 담론'은 궁극적으로 '신민국가'와 '신대한'을 이룩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제기된 것이다.

References

- [1]. Choi Nam Sun, Complete Collection of the Yook Dang Choi Nam Sun 5, Hyun Amsa, Korea(1973).
- [2]. Moon Dae-il, Lee Hae Jo and Liang Qi Chao's Feminist Thoughts : A Study of <Hong Do Hwa>, <Ja Yu Jong>, The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JCLL), No.94 October 2015, pp.159-184
- [3]. Moon Dae-il, Transplantation and Evolution of Heroic Discourse - Focusing on Byron and Liang qi chao, Journal of Sinology and China Studies, vol.79 June 2019, pp.41-56.
- [4]. Yoon Young Shil, Main Power of the Nation-State, the Distance between 'the Youth' and 'Boys', Korean Cultural Studies, No.48 June 2008, pp.99-125.
- [5]. Liang qichao, Liang Qi Chao quan ji 2, Beijing Publishing House, China(1999).
- [6]. Choi Nam Sun, Complete Collection of the Yook Dang Choi Nam Sun 10, Hyun Amsa, Korea(1973).
- [7]. Moon Dae-il, A Study on the Korean Translation Strategy of 《Mu Yang Ai Hua》 by Period,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7 No.1 January 2021 pp 377-382
<http://dx.doi.org/10.17703/JCCT.2021.7.1.377>